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추진... '전국 1위' 목표

현재 인증면적 1660ha... 전국 4위 올해 6160ha까지 확대할 예정 오는 21일까지 상반기 신청 받아

전라남도는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현재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660ha로 전국 4위(11.7%)다.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순위는 1위 전북 4427ha



저탄소 인증 농가

/전남도

(31.2%), 2위 경북 3303ha(23.2%), 3위 충북 1766ha(12.4%), 4위 전남 1660ha(11.7%), 5위 경남 892ha(6.3%)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물 재배, 제조용 생물자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6160ha(기존 1660ha·신규 450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

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건당 100만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농업도 예외일 수 없고,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남이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액은 2020년 553억 원에서 2023년에는 82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특례시

올해 4만4452개 일자리 창출

창원특례시는 '2025년 창원시 일자리 종합 대책'을 통해 4만 44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5.8% 증가한 수치다.

시는 민생 안정·인구 대응, 기업 지원, 시설 투자 등 4대 분야, 41개 역점 전략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청년 및 노인 일자리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1778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 일자리 확대 ▲여성·장애인·외국인 고용 지원 ▲청년 일자리 ▲중장년 재취업 및 전역 장병 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전국 체전 청년기자단 모집

경상남도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9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청년기자단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체전에 관심이 많고 기자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19~34세 청년이며, 심사 기준은 콘텐츠 제작 능력, SNS 활동 경험, 열정 및 참여 의지 등으로 보내 거주자 및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우선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위촉일에서 체전이 개최되는 5월까지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전 누리집·인스타그램, 개인 온라인 채널 등에 게시해 전국에 체전 소식을 알리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주시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경주시는 재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1분기 내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310대를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강동면 국당리·오금리 등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총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해 강동면 오금3·4리(108대), 국당2·3리(202대) 등 총 310가구에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우 기자 asdadx@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2년연속 선정

전남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수행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앞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나주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구미시, '영유아 성장검사' 도입

경북 첫 '더자람 영유아 성장검사' 오는 3월 영유아 5200명 검사 실시

구미시가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더자람 영유아 성장검사'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언어 발달과 사회성이 지연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5200명을 대상으로 성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투입하며, 가정 양육 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마음상담소에서 발달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이 진행하며, 보호자와 어린이집에 개별 결과를 제공한다. 발달검사는 답안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솔루션을 지원하며, 기질검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녀의 기질별 양육 방안을 안

내한다.

지난해 3세 영유아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구미시는 올해 대상 연령을 확대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로 검사 범위를 넓혔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음상담소에서 추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개관한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자녀 체형 프로그램, 육아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내 육아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온가족 숲 체험 ▲어린이 뮤지컬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 '육아쉽포 공모사업'에서 경북 유일 선정돼 국비 1400만원 확보 및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2029년 개통 예정

울산시는 지난 10일 도시철도 1호선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트램 1호선은 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태화강역에서 신북 교차로까지 길이 10.85km, 정거장 15개소의 노선을 친환경적인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814억원으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주요 가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 도로 중앙에 복선 트램 선로를 설치하고, 차량 9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0분, 기타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에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했다. 또 트램 건설로 인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교통 체계 효율화 용역'을 시행, 공업탑 로터리의 체계 개선과 차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경찰청 등 교통 전문가와 사전 논의했다.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가 진행된다.

울산시는 공사 기간 최소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 방식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는 3월 중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순천시, 소상공인·시민 지원정책 마련

1500억 상당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시는 도내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지난 9일까지 총 502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또한,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총 8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요금 3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민생경제 회복 체감형 지원책을 강화했다.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5인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된다. 지난 3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첫 주에만 9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목포시,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올해 9월 완공 목표

목포시는 서남권 9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 완도, 진도, 해남, 영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플랫폼은 평화로 82 일원(평화광장)에 위치하며, 202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은 서남권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은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이 마련되며, 방문객을 위한 안내데스크와 수유실도 포함된다. 2층은 기념품 등 지역 관광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 플랫폼이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